

K O R E A M A R I T I M E I N S T I T U T E

해양을 따라서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린다

● Contents



<input type="checkbox"/> APMT의 동아프리카 진출 및 투자 가속	2
<input type="checkbox"/> 남아프리카, 항만운영의 경쟁 촉진 예정	3
<input type="checkbox"/> 코스타리카 APMT, Moin Container Terminal 승소	4
<input type="checkbox"/> DPW, 남아프리카 지역 항만 민영화 기대에 주목	5
<input type="checkbox"/> 「2012년 제2차 해외투자사업 타당성조사비용 지원 대상사업」 수요조사	6

□ APMT의 동아프리카 진출 및 투자 가속

- 최근 APMT는 탄자니아 정부와 Das es Salaam항에 신규 컨테이너터미널을 개발 및 운영 관련 논의를 시작함
 - APMT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Sub-Saharan Africa) 지역에 운영, 보수 및 공사 중인 터미널을 포함하여 총 9개의 컨테이너 터미널을 보유하고 있음
 - 2010년에는 리베리아의 Monrovia 터미널에 BOT(Build-Operator and Transfer) 방식(100% 지분 확보)으로 아프리카의 첫 번째 Concession Agreement를 체결하고, 향후 25년간 120백만달러를 투자할 예정임
- Das es Salaam항의 경우에는 2013년 상반기 기준 평균 선박 대기 시간이 10~11일에 이르고 있어 현재의 능력으로는 물동량 처리가 불가능
 - 이러한 상황으로 고려하여 APMT는 동아프리카 지역의 컨테이너 시장을 매우 낙관적으로 보고 있으며, 단기간에 신규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함(아프리카 지역 항만시설의 약 30% 이상이 노후화·황폐화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
 - 따라서 탄자니아 정부에 신규 컨테이너터미널의 개발 및 운영을 제안하였으며, 이 터미널이 건설되면 하역능력을 1백만 TEU까지 증가시키고, 최소 14m 이상의 수심을 확보하게 됨
- 동아프리카 지역에는 전반적으로 대수심의 최신 항만 개발이 필요하며, 케냐, 탄자니아 및 모잠비크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많은 기회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함
 - 특히, ICD(Inland Container Depot)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ICD의 개발은 만성적인 항만의 체증을 감소시키고, 터미널 하역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
 - 아울러 급성장하고 있는 아프리카 내륙도시와의 연계성을 제고시켜, 주요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APMT는 동아프리카 지역뿐만 아니라 남아프리카가 항만개발에 대한 민간 참여의 입장을 변경할 경우 적극적인 투자를 계획하고 있음(주요 GTO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사안임)
 -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민간개발 시 BOT 방식이 가장 효율적이라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신흥국 정부는 최적의 민간업체를 선정할 수 있으며, 민간업체는 또한 신속한 개발이 가능하다고 제안함
 - 아울러 아프리카 지역에서 대고객 서비스 제고를 위해서는 시설개발뿐만 아니라 요율, 통관, 국경물류 등 물류전반의 효율화와 복합운송의 활용이 중요하다고 제안함

자료 : www.lloydslist.com, 2012.7.27

김근섭 전문연구원 (☎ 02-2105-2846, gskim@kmi.re.kr)

□ 남아프리카, 항만운영의 경쟁 촉진 예정

- TNPA(Transnet National Port Authority)의 최고 운영책임자인 Herbert Msagala는 TRANSNET사가 기존에 남아프리카 항만운영 임대계약이 자동적으로 갱신되어 오던 행태를 근절시키고 항만 자산과 서비스에 대한 자유경쟁 입찰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발표
 - TRANSNET사는 남아프리카의 대형 국영 운송그룹이자 지주회사로 남아프리카의 항만 운영 및 감독관리 주체이기도 함
 - TNPA는 TRANSNET사의 한 부문으로, 2,954km에 이르는 남아프리카 해안의 7개 상업항¹⁾ 모두를 통제 및 관리하고 있음
- Mr. Msagala는 케이프타운에서 개최된 해양산업 컨퍼런스에서 항만관련 해양법 초안의 일부로서 항만 사업 정비안에 대해 발표
 - Mr. Msagala는 임대계약이 만료될 경우, 갱신계약을 신규 입찰자들에게 개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 운영자와의 균형을 맞추고 선도 사업자와의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항만의 성장환경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힘
- 이러한 항만 입법 개혁은 TRANSNET사가 컨테이너 및 벌크무역 활성화를 위해 계획한 49.8억 달러 규모의 항만 투자계획에 기인한 것이며 이중 Durban항 확장 및 수심증설에 10억 달러를 배정
 - 금년 4월 TRANSNET사는 컨테이너 무역 활성화를 위한 주요 프로젝트에 Durban 컨테이너 터미널 1번 부두 확장을 포함시켰다고 발표하였으며, 내년까지 컨테이너 처리능력을 기존의 70만 TEU에서 82만 TEU로 확장하고 최종(2016/2017)적으로는 120만 TEU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음
 - 또한 Durban 컨테이너 터미널 2번 부두 역시 2011/2012년 210만 TEU에서 2013/2014년까지 250만 TEU로, 2017/2018년까지는 330만 TEU로 확장할 예정임
 - Ngqura 컨테이너 터미널도 컨테이너 물동량 예측치에 맞춰 2018/2019년까지 처리능력이 200만 TEU로 증가될 예정임
- 또한 TRANSNET사는 벌크화물에 대한 투자계획의 일환으로 Saldanha항의 철광석 처리시설을 연간 8,200만 MT까지 확장하고 남아프리카 망간 처리능력도 증가시킬 계획
 - 이를 위해 TRANSNET사는 현재 Elizabeth항에 위치한 망간 수출시설을 Ngqura항에 신규로 건설된 두 개의 망간처리 선석으로 이전하여 처리능력을 현재 550만 톤에서 2016/2017년까지 1,200만 톤으로 증가시킬 계획임

자료 : www.portfinanceinternational.com, 2012.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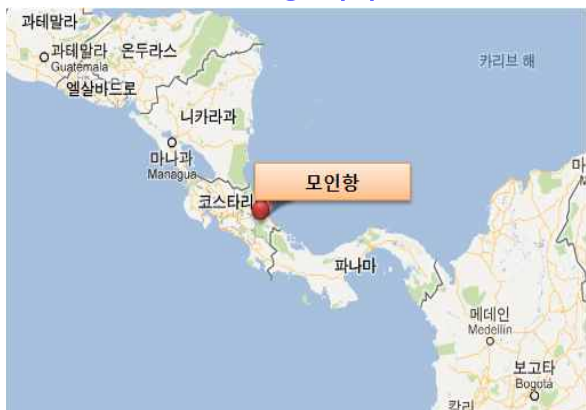
김홍배 전문연구원 (☎ 02-2105-2828, hisgrace@kmi.re.kr)

1) Richards Bay, Durban, East London, Port Elizabeth, Mossel Bay, Cape Town, Saldanha항

□ 코스타리카 APMT, Moin Container Terminal 승소

- 코스타리카 법원은 최근 카리브 연안에 위치한 코스타리카 리몬항(Limón Port)의 신모인 컨테이너 터미널(The New Moin Container Terminal, TCM)의 허가를 막기 위한 소송에서 APMT가 승소 판결
 - APMT 부장에 따르면, APMT과 코스타리카 정부간의 소송은 투명성과 허가 절차의 적법성에 따라 승소한 것이라고 함
- 아울러 APMT는 신모인 컨테이너 터미널¹⁾ 인프라 개발을 위해 단독 투자 중 최대 규모인 992백만 달러²⁾ 상당의 투자를 통해 설계, 재무, 건설, 운영 및 유지보수를 담당하게 될 예정임
 - 현재 APMT는 최종 설계와 라이선스 및 허가증을 얻기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제반사항과 엔지니어 연구를 수행중인데, 이는 2013년 이전에 시작될 건설에 대한 정부의 승인을 획득하기 위해 제출될 것임
 - 향후 APMT가 운영을 통해 코스타리카에 장기 경제 성장 및 글로벌 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되며, 리몬지역(Limón Province)내 외국 및 국내 제조와 물류 투자를 촉진시킬 것으로 전망됨
- 현재 신모인 컨테이너 터미널 규모는 부지 40헥타르, 600m 길이의 2개 선석, 1,500m 방파제, 수심 16m로 구성되어 있으나 금번 개발이 완료되면 부지 80헥타르, 1,500m 길이의 5개 선석, 2.2km 방파제, 수심 18m가 될 것으로 예상

< 모인항 위치 >



< 신모인 컨테이너 터미널 예상 조감도 >



자료 : www.worldmaritimenews.com, 2012.8.7

황현주 연구원 (☎ 02-2105-2897, julya7@kmi.re.kr)

1) 2012.8.13 매매기준을 적용, 1\$ = 1,130원, 992백만 달러 = 1,120,960백만 원

2) 모인항(Port of Moin)은 현재 코스타리카의 국제 상거래의 80%를 담당함

□ DPW, 남아프리카 지역 항만 민영화 기대에 주목

- DPW는 현재 남아프리카의 동부 해안에 위치한 지부티 항(Djibouti port)과 홍해 남쪽에 위치한 마푸토항(Maputo port)을 기점으로 세네갈의 다카항(Dakar port)의 운영까지 확대 하고 있음
 - 또한 지중해로 통하는 허브항만인 북부 아프리카의 알제리 항만(Port of Algeria)을 운영하면서 아프리카의 물류 전략 거점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확대를 추진
- DPW는 모잠비크의 풍부한 석탄자원 수요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가우텡주(Gauteng)까지 이어지고 남아프리카의 짐바브웨이와 보츠와나 또한 포함되어 있음
 - 따라서 물류의 대안적 경로를 고려하면서 남아프리카의 항만 민영화 사업 참가에 적극적으로 고려 중
 - 특히 남아공의 Transnet¹⁾ 에서 항만과 철도를 연계하는 인프라 업그레이드에 371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 발표되며 더욱 관심이 모아짐
- DPW는 현재 세네갈의 다카항 안에 있는 푸루트항(Port du Futur) 컨테이너 터미널 건설을 진행하면서 아프리카의 잠재적 투자에 중점을 둠
 - 2010년 기준 다카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34만 9,213TEU이며 “안정적 성장”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함
 - DPW는 푸루트항 컨테이너 터미널 개발과 더불어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밝힐 수 없지만 아프리카의 동, 서, 남부 항만 개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음을 밝힘
 - APMT²⁾도 아프리카의 컨테이너 개발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아프리카의 내륙 물류 회랑의 필요성을 지적하였으며,
 - 증가하는 내륙의 수요에 맞춰 내륙 복합물류 회랑 개발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10년간의 중장기 아프리카 시장 개발을 통해 잠재적 기회에 기대를 하고 있음

자료 : www.lloydslist.com, 2012.8.10

전혜경 연구원 (☎ 02-2105-2982, saeii@kmi.re.kr)

1) Transnet(the official rail and transport service in South Africa)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철도화물 담당 공기기업

2) APMT는 라이베리아의 몬로비아 항(Port of Monrovia)을 2010년에 BOT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25년간의 운영권을 가짐

「2012년 제2차 해외투자사업 타당성 조사비용 지원 대상사업」 수요조사

해운물류관련 유망사업을 발굴하고 해운물류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고자 「2012년 제2차 해외투자사업 타당성조사비용 지원 대상사업」 수요조사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조사기간/사업예산 : 2012.7.25(수) 09:00 ~ 8.24(금) 15:00 / 134백만원

2. 대상기업

- 물류정책기본법에 의한 물류업을 영위하는 자
(외국에 설립된 법인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의 지분이 50%이상인 기업 포함)
- 국제물류투자펀드 운용사, 은행, 연기금 및 공제회 등 재무적 투자자

3. 보조금지원 대상사업

- 해운물류기업의 해외 항만 및 물류센터 개발 투자·운영권 확보
- 자원개발과 연계한 운송 및 자원물류시설 운영 등 참여
- 물류기업(해운선사, 3PL, 터미널 운영사 등)의 인수·합병 및 해외 파트너사와의 합작법인 설립 등

4. 보조금지원 금액

- 건당 최대 1억원까지 지급하고, 보조금액은 타당성 조사 소요비용에 따라 정을지원

사업비용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보조금 지원율	70%	60%	50%	1억원

-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되므로 실제 지급액은 보조금 지원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보다 적을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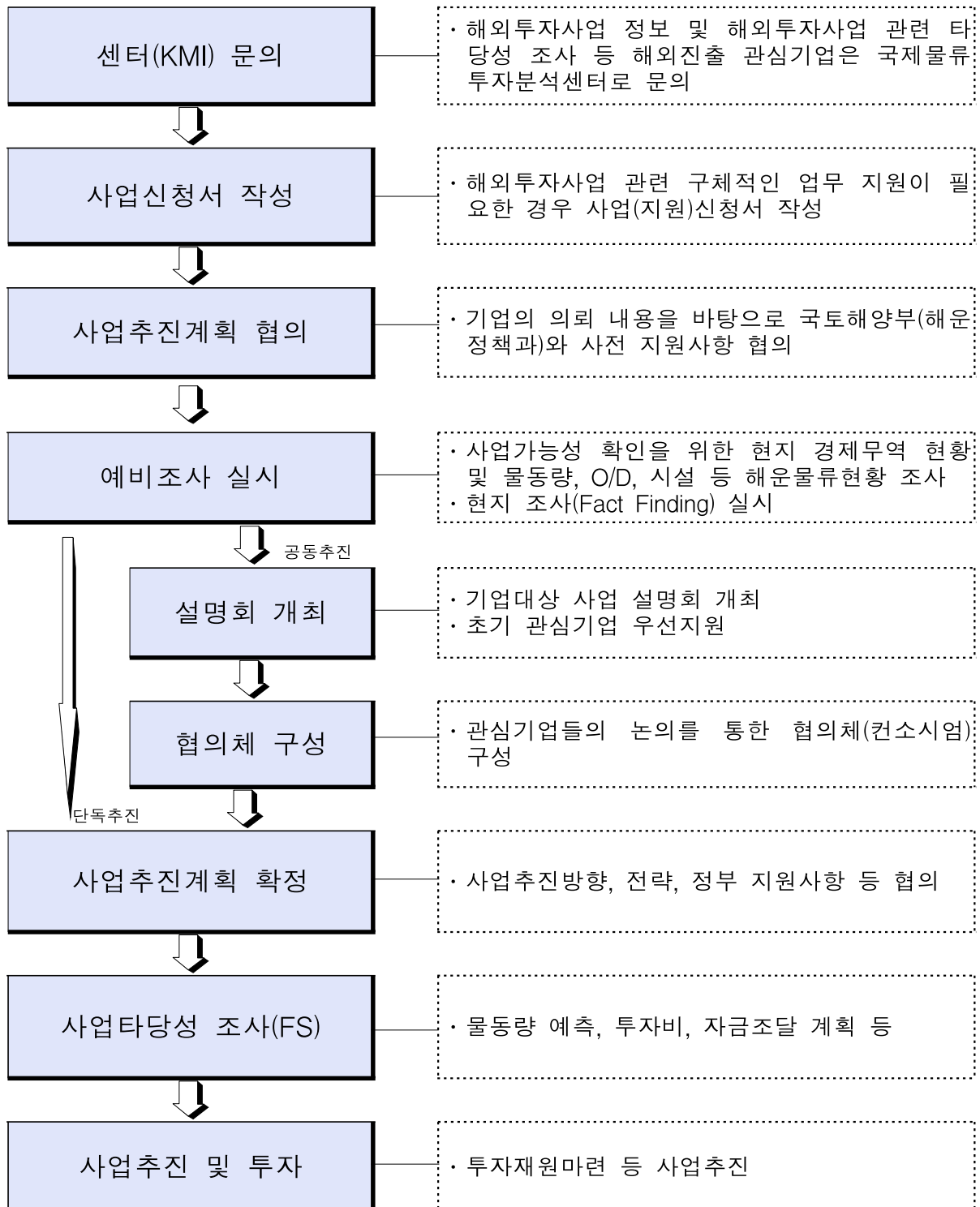
5. 접수처

-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과천정부청사 4동 611호)
- 담당자 연락처 : 오영록/최희동 02-2110-6372, 8558
- 신청기업 관계자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
(외국에 설립된 법인의 경우 신청기업 관계자가 아니더라도 대리자가 방문하여 신청 가능)

6. 기타 참고사항

- 심사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공고문 및 사업제안서 등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람
(<http://www.mltm.go.kr>)
- 기타 사항은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02-2110-8558)로 문의하시기 바람

[해외투자사업 추진절차 및 센터 이용문의]



* 기초타당성 조사(실비 부담), 정부간 협상, 투자사업 관련 정보 및 기초 자료 제공